

광주시, 동방 제일 누각 '희경루' 중건식 개최

최초 건립 572년·소실 100여년 만에 건립, 광주시민 품으로 보물 '희경루 방회도' 고증 거쳐...장소는 광주공원으로 변경 강기정 시장 "일상의 기쁨과 활력 함께 누릴 수 있는 명소"

동방 제일 누각 '희경루(喜慶樓)'가 돌아왔다. 최초 건립된 지 572년, 사라진 지 100여년 만에 고증을 거쳐 중건됐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0일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박영근 대목장(시무형문화재),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오기주 광주시향교전교협회장,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 황봉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원에서 '희경루 중건식'을 개최했다.

희경루는 1450년부터 1451년(문종 원년~문종 1년) 무진군수(茂珍郡守) 안철석(安哲石)이 옛 공북루터에 건립했던 누각이다.

때마침 무진군이 광주목으로 승격, 복호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의 '희경(喜慶)'이라 이름 지

어진 호남 대표 누정이다. 당시 신숙주는 '동방(東方)에서 제일가는 루(樓)'라 칭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희경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희경루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했다.

건립의 타당성과 의미를 현재에 되살려 건축하는 '중건(重建, Recreate)'으로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철저한 고증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희경루 중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희경루의 원래 위치가 충장우체국 일원으로 파악됐으나, 지리적 환경과 접근성, 사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광주공원에 중건하기로 결정했다.

희경루의 외관은 동국대박물관 소장 보물 제1879호 '희경루 방회도(榜會圖)'를 바탕으로 당시의 모습을 고증했다. 희경루 정면 현판은

1451년 광주목 복호와 희경루 낙성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문종공순대왕실록'에서 집자했으며, 후편 현판은 필문 이선제 선생의 후손인 이남진 서예가의 지도를 받아 강기정 광주시장이 썼다.

이날 희경루 중건식은 국가무형문화재 '포리정악 및 대취타' 광주호남지부와 광주시무형문화재 '광산농악'의 행렬을 시작으로, 희경루 현판 제막식, 중건고유(告由)제, '2025년 세계양궁대회' 성공개최 희망 활쏘기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만의 인공지능·문화 기술로 희경루 방회도 재연공연도 진행했다.

특히 희경루 중건고유제를 통해 희경루 건립의 과정과 희경루의 중건을 널리 알렸다. 고유(告由)는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이나 치른 뒤에 그 사유를 종묘나 천지신명에게 알리는 것이다.

중건기념 활쏘기 퍼포먼스는 활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남구 구동에 자리한 광주 대표 누각 '희경루' 중건 기념식에 참석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김광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등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을 쓰는 관덕정(觀德亭)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희경루의 사대(射臺)로써의 의미와 2천년 전 마한시기 신장동유적 출토 마한궁(馬韓弓)을 활용한 행사를 통해 국제양궁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오는 2025년 국제양궁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희경루가 최초 지어진 지 572년 만에 멋스럽고 웅장하게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희경의 의미인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은 곧 민선 8기 시정목표"라며 "시민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많아지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희경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근대역사의 산실인 양립동을 잇는 문화명소"라며 "앞으로 새로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여행광주의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거듭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유빈 기자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기아는 차량 판매부터 시승, 구매, 정비 서비스, 브랜드 체험까지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복합 거점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6)를 20일 공식 개관했다.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는 강서, 인천, 부천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비수도권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다.

기아는 기존 서광주지점과 광주 시청지점을 통합해 지상 2개 층의

대규모 고객경험 공간을 마련하고 더욱 확장된 미래 모빌리티 체험 요소와 차별화된 구매 및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와 브랜드 체험 콘텐츠가 마련될 예정이다.

기아 플래그십 스토어 홈페이지 내 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대기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시 관심 차종

을 입력하면 맞춤형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브랜드 체험 콘텐츠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뉴 테크 시뮬레이터(New-tech Simulator)'가 운영된다. 대형 LED 스크린으로 전차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ADAS 주행 기술을 차종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토리에 기반한 가상 체험을 통해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차량 선택 사양을 직접 조합해 가상으로 제품을 구현하는 '3D 컨피규레이터(Configurator)'도 운영된다.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원하는

차량의 내·외장뿐 아니라 도어 및 트렁크 개폐, 방향 지시등 작동 모습 등을 실물 크기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기아의 모든 외장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컬러 컬렉션(Digital Color Collection)'도 준비돼 있다. 태블릿 PC로 구현한 일종의 '디지털 컬러칩'을 활용해 여러 색상을 동시에 보고 비교할 수 있으며 원하는 색상이 적용된 차량 정보를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에 담을 수 있다.

아울러 신차 출고 고객에게 특별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차

인도 공간인 '기아 픽업 라운지'를 마련하고 차량 공개부터 품질, 검수 과정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고객에게 직접 신차를 인도한다.

기아는 차량 성능 체험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지역 특화형 시승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먼저, '투어 시승'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통과하는 코스 후석 2열에 앉아 차량의 승차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차량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오토랜드 광주의 주력 생산 차종, 연혁 등 각종 세부 정보를 소개하며 색다른 시승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기차 충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에 설치된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충전소 'E-pit(이피트)'에서 직접 충전해 볼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해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다양한 시승 코스를 구성하고 ▲동승 시승 ▲비동승 시승 ▲야간 시승 ▲패밀리 시승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승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유빈 기자

호 소 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본인은 호남사학을 대표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문수입니다. 본인은 지난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조선대학교의 정상화와 대학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과 상식을 깨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조선대개 운동권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대통령님에게 대학을 정상화시켜주시길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이 학교법인 조선대 학교의 이사회를 정상화해서 대학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5월25일에는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설립자 측 이사 선임 뒷마저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찬탈해버리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설립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이사들로 채우며 운동권이 판을 치는 이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회가 파행과 비정상적인 판을 치는 학교법인 사무처에서 사용하는 법인 카드 4장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상태로 이들은 법인의 비리를 감추는데 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조선대총장의 직인까지 도용해가며 임명을 강행하고 교육부에서는 김 이사장을 비롯한 동조자 4명의 불법행위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 이사장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수차례 기관경고, 주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금하고 있는 임원의 학사개입 금지 조항을 어기고 여전히 대학에 대한 학사개입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교수평의원회와 교수노동조합, 동문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제3기 정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은 그동안 김 이사장을 비롯한 운동권 비호를 받은 이사진들의 무수한 위법 행위를 바로 잡고자 2회에 걸쳐서 김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며 왜곡된 이사회를 바로잡기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족 상태에서 조선대이사회는 불법행위를 저지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법을 가장 잘알고 법을 누구보다도 더 지켜야 하는데도 사립학교법과 정관과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불법위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들을 대통령님께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시급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관련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2

호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문수